

# 1980년대 한국 여성복식의 현상 연구 — 1980년부터 1992년을 중심으로 —

김서연·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Study of Korea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during 1980's

Seo-Youn Kim and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Chungnam University

### 目次

Abstract	3. 스포츠의 생활화
I. 서론	4. 감각문화의 발달
II. 이론적 배경	5. 소비형태의 변화
1. 문화의 개념	6. 가치관의 변화
2. Malinowski의 문화의 개념	IV. 복식현상
3. 복식과 문화	1. 의복
III. 사회적 배경	2. 장신구
1. 자율화 경향	V. 결론
2. 생활의 간편화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f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of young Korean people from 1980 to 1992. This study is applied of the thoughts of culture of B. Malinowski and related 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The materials of clothes have had higher quality and the colors varied. And sports wear has popularized even for a daywear as people have concerned of the health a lot.

Big look and unisex mode in casual wear have been also popular. Underwears and jeans became fashionable. Pants and skirts have been getting shorter and they reached to the mini length. And reformed-Korean traditional clothes has developed. Ecology has been appeared as a whole in fashion.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gave satisfaction to modern people who pursuit of healthy and convenience of life and want to creat the individuality and intend to develop of traditional culture and want to express themselves as perfection of self.

As shown above,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are an element of culture which is the reflection of the social phenomenon. It is a instrumental reality that satisfied with the needs of social members.

## I. 서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국내는 급격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문화, 예술 분야의 혼합된 양식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양식과 가치의식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여러 사회적 요인들은 1980년 12월 시작된 컬러 TV의 보급에 따른 색채 혁명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사회 계반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젊은층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들의 개성화, 다양화는 색채혁명과 연결되어 복식, 일용품, 광고, 장식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디자인 문화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한편, 복식을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복식현상을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파악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중 유수경<sup>1)</sup>은 한국의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1880년대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여성복식 변천을 근대화론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박길순<sup>2)</sup>은 8·15 해방부터 1990년까지의 여성복식을 대상으로 양장이 확산, 정착되는 것뿐 아니라 패션산업으로까지 발달되면서 여성복식의 패션화와 패션의 국제화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순심<sup>3)</sup>은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이 일어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복식문화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하고 함께 변화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박정숙<sup>4)</sup>은 문화의 한 양상인 패션 연구를 통해 교복 자율화가 실시된 1980년대의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에 맞는 복식문화를 형성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1980년대의 복식현상을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이해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198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여성복식의 현상을 살펴보고, 이 시기의 복식이 급격한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켰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 1월부터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이양되던 시기

- 1) 유수경, "한국 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
- 2)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3) 김순심, "우리나라의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16(1991) pp. 141-148.
- 4) 박정숙,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인 1992년 12월까지의 여성 복식을 Milinowski의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일간스포츠의 일반기사와 복식에 관련된 기사, 월간 「멋」의 복식 관련 기사, 그리고 한국일보의 젊은 세대의 문화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 개념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문화에 대한 개념은 문화가 무형문화와 유형문화의 총합이라는 관점과, 문화는 실체가 아닌 하나의 추상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Edward B. Tylor는 그의 저서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sup>5)</sup>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Tylor의 입장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Leslie A. White는 「The Concept of Culture」(1973)에서 “상징행위에 의거한 사물과 사건들이 인간유기체와의 관련에서보다는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고려되고 해석될 때 이것을 문화라고 한다.”<sup>6)</sup>고 하였다. Franz Boas는 1938년 「The Mind of Primitive Man」에서 “문화란 한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를 특징지우는 정신적, 육체적인 반응과 활동의 복합총체로 정의해도 좋겠다.”<sup>7)</sup>고 하였고, Ralph Linton(1940)은 문화를 “특정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달되는 학습적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들의 전체 형상”<sup>8)</sup>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Felix M. Keesing은 문화를 “학습되고 축적된 경험을 가리키며, 하나의 문화는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전승된 행위유형”<sup>9)</sup>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Bronislaw Malinowski는 그의 저서 「Man's Culture and Man's Behavior」(1941)에서 “한 개인의 관심이 공공의, 공유의, 그리고 이동 가능한 조직화된 노력의 체계로 바뀌었을 때에 문화적인 것이 시작된다”<sup>10)</sup>고 하였으며, 모든 사회제도와 문화적 요소들은 통합적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며 그 전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기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생리적 및 심리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의 기능이고, 인간의 욕구충족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보다 잘 극복하기 위한 도구적 장치가 바로 문화임을 강조하였다<sup>11)</sup>.

이에 비해 A.R. Radcliffe-Brown은 「On Social Structure」(1940)에서 “문화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추상이다.”<sup>12)</sup>라고 밝히고 있다. W.H. Goodenough(1961)는 “문화란

5) M. Singer,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 The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86) p. 527.

6) Leslie A. White, 이문용 역, 「문화의 개념」, 서울 : 일지사(1990) p. 141.

7) 전계서, p. 70.

8) R. Linton, 김경수 역, 「문화와 인성」, 서울 : 현음사 (1992) p. 45.

9) Leslie A. White, 전계서, p. 134.

10) 전계서, p. 72.

11)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1986).

12) 전계서, p. 59.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sup>13)</sup>라고 하였으며, A. Kroeber와 C. Kluckhohn(1952)은 그들의 공동연구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로부터 끌어낸 추상이다.”<sup>14)</sup>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문화는 인간만의 고유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유기적인 통합체이고, 공유되고, 학습되고, 전승되며, 인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문화의 개념 중에서 Malinowski의 문화에 대한 개념을 현대 복식에 적용하여, 문화의 일부인 복식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Malinowski의 문화의 개념

영국 인류학에 있어 기능주의의 주창자로 유명한 B. Malinowski는 욕구에는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이 있으며 문화는 이러한 욕구충족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기능주의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중요시하므로 특히 심리적 기능주의라고도 한다.

Malinowski는 인간에게는 7가지의 기본적인 욕구 - 신진대사(metabolism), 재생산(reproduction), 신체적 안락(bodily comforts), 안전(safety), 이동(movement), 성장(growth), 그리고 건강(health)<sup>15)</sup> - 가 있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문화적 응답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 욕구에 대한 문화적 만족을 억제하기 위해 이차원적 또는 파생적 명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 유기체의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문화적 형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문화적 명령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란 통합적 전체(integrated whole)로 파악되는 존재이며,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욕구를 고루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도구적 실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Malinowski에 의하면 문화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도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복식과 문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사회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되고 성장한다. 또한 각 사회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문화라는 메카니즘을 통해서 환경 -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 에 적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조직 내에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직업, 신분에 적절하게 복식을 착용하여 사회와의 통일성을 표현하고 사회적 적응을 해야 한다.

복식이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어떠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택한 옷, 장신구, 문신, 화장품, 화장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장식물, body covering과 장식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sup>16)</sup>. 이러한 복식은 사회의 정치제도, 경제사정, 도덕적인 패턴, 심

13) 한상복 외 2인, 전게서, pp. 67-68.

14)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84) p. 133.

15) F. W. Voget,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e Anthropology*, ed. John J. Honigmann.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1971) p. 30.

16) 김진규, “복식과 사회”,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Vol. 4, pp. 253-303.

미적 양식, 건축양식, 과학기술적인 양식 등에 따라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동시에, 한 문화내에서도 항상 변한다. 그러므로 복식과 복식행동의 기본적인 양식들은 문화적 형태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일정한 사회의 기술적,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미학적 배경을 반영한다. 또한 복식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는 생리적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장식과 치장을 통해 미를 추구하거나 영적인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부와 지위, 가치관 등을 표현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내에서 인정을 받는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 Ⅲ. 사회적 배경

#### 1. 자율화 경향

1982년의 통행금지제도 해제와 1983년의 교복자율화 실시로 시작된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였다. 통행금지제도가 해제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범위와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교복 착용이 사라지면서 청소년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또한 해외 유학과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해외의 문물을 익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 이루어진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자율화 경향은 밝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파 생활 영역의 확대, 국제화 의식의 고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2. 생활의 간편화

1980년대에는 도시화가 촉진되고 대량수급체제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여가가 증가하면서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간편화되어 갔다. 또한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위한 업무의 자동화, 관리와 이동의 편이를 위한 소형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1980년대는 간소화, 전문화, 자동화를 통하여 생활에서의 편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 3. 스포츠의 생활화

근면과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주력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1980년대에는 경제적 풍요가 이루어져 생활이 안정되면서 취미생활과 건강증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1981년에 결정된 올림픽 대회의 서울유치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였다. 한편, 스포츠의 대중화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모험 스포츠라는 새로운 영역의 스포츠 활동을 가능케 하여 젊은이들의 도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4. 감각문화의 발달

1980년 12월의 컬러 TV방영과 더불어 열리기 시작한 색채의 다양화 물결은 각종 디자인문화의 발달을 가져왔고,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시각적 미감을 중시하게 되자 생

활용품이 패션화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한편, 이러한 색채와 디자인 문화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아 「행동하거나 사색하는」 문화라기보다 「느끼는」 문화를 추구하게 된 젊은 세대에 의해 감각 문화가 발달하였다<sup>17)</sup>

## 5. 소비형태의 변화

1980년대는 소비수준의 증가, 수입개방이 몰고 온 외국문물의 영향, 색채혁명으로 표현되는 컬러 TV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생존에 필요한 일차적 욕구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충족감을 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과 개성을 중시하는 감성소비시대가 되었다<sup>18)</sup>. 특히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풍요를 누리는 세대인 젊은 층은 기본적 욕구에 충실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문화용품 중심으로 고감각 상품을 선호는 복합소비, 소모성 소비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 6. 가치관의 변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된 1980년대는 이전의 물질지향적 삶에서 정신적 가치지향적 삶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특히 6·25 이후에 태어나 전쟁의 어려움을 모르고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의 뚜렷한 특징인 개인주의적 의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은 그들의 직업관이다. 즉, 젊은 세대는 풍요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생존의 문제보다는 삶의 질과 문화의 문제를 중시하는데다, 평범한 직장인이면서도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때문에 직장을 일하는 공간이자 문화활동의 공간이며 자기발전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향상, 충분한 영양섭취,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등의 이유로 이전세대와는 체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처럼 이전세대와 체형이 다른 젊은 세대는 미의식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어,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우며 구체적인 개성표현이 미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의식변화 중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운동권의 변화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반미(反美)와 통일 지향의 학생운동은, 젊은 세대는 물론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쳐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었으며, 전통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생활속에서 민족의식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해 나가려는 문화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한글 티셔츠와 개량한복의 착용, 전통 음악에의 관심과 국악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 순수 우리말의 애용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현대인들은 건강을 중시하며 생활에서의 편이를 추구하고, 개성의 창조와 전통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17)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시각문화』, 『한국일보』, 1988년 10월 26일.

18) 『품질보다 멋시...「감성소비」시대』, 『동아일보』, 1989년 12월 2일.

## IV. 복식현상

### 1. 의복

#### 1) 의복의 고급화 및 다양화

##### (1) 소재의 고급화 및 다양화

###### ① 천연섬유의 선호

1980년대에 가장 먼저 인기를 얻기 시작한 마직물은 통기성이 우수하고 습기의 흡수와 발산효과가 뛰어나며 짜임새가 성글고 몸에 달라붙지 않아 여름 옷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쉽게 구겨지고 염색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게 되어, 그 사용이 의복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면 니트를 소재로 한 캐주얼웨어를 자유롭게 코디네이트(coordinate)시키는 착용방법이 등장하여, 여성적인 곡선을 드러내면서도 감촉이 부드럽고 활동이 자유로운 면소재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겨울의류의 대표적 소재인 양모는 그 용도가 캐주얼웨어에까지 확대되었고, 특수가공하여 여름의류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여름용 양모인 쿨울(cool wool)은 가볍고 얇고 까실까실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하여 착용감과 활동성, 의복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광택과 촉감이 좋고 다른 소재에 비해 가볍고 전체 무게의 30%까지 수분을 흡수할 정도로 흡습성이 뛰어나 위생적인 소재인 실크도 넥타이, 스카프, 블라우스 등 주로 패션소품의 소재로 활용되던 예전과는 달리 정장, 바지, 트렌치 코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1980년대에 다시 등장하여 인기를 얻게 된 또 하나의 천연소재로 가죽을 들 수 있다. 이시기 가죽의류의 보다 특징적인 점은 가공기술과 염색기술에 힘입은 패션성의 강조이다. 특히 자기를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몸매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세대는 부드러운 재질과 화려한 색상, 인체의 선을 강조한 디자인의 가죽의류를 선호하였다(그림 1).

###### ② 첨단 신소재(尖端新素材)의 등장

소재를 통한 신체보호와 신체기능의 보완은 천연섬유가 갖는 결점을 보완하고 천연섬유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기능을 첨가한 신소재의 개발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개발된 첨단 신소재로는 고신축성직물, 투습방수섬유, 야광섬유, 위생섬유, 정전기방지섬유, 자외선차단섬유, 인공지능섬유 등이 있다. 이 중 투습방수섬유는 폴리우레탄 코팅이나 고밀도 직물을 사용하여 물의 내부 침투는 막아주면서 땀의 발산을 원활히 해주어 스포츠웨어는 물론 일반 방한의류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야간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야광섬유는 자체축광으로 빛을 내거나 일단 받은 빛을 반사해 빛을 내는 소재로서 조깅복, 청소원복, 교통순경복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살균성이 강하면서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화학물질을 섬유에 처리하여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죽이고 번식을 억제하는 위생섬유는 의복, 양말, 타월, 신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정전기방지섬유는 인화물질을 다루는 곳이나 실험실 등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활용되었다<sup>19)</sup>.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

19) "첨단소재가 신기록 만든다", 『일간스포츠』, 1987년 9월 26일.

선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자외선의 장파와 단파를 85~95%까지 차단할 수 있고, 더위의 원인이 되는 가시광선의 열선을 흡수함으로써 의복 내부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는 자외선차단섬유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고기능(高機能), 고급 의복 소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고품질(高品質)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었다.

## (2) 색상의 다양화

198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컬러 TV의 방영을 통해 색채 감각에 예민해진 국민들의 시각적 미감을 가장 먼저 만족시켜 준 것은 의복으로, 겨울의 검정색과 여름의 흰색으로 대별되던 의복의 색채가 여러가지 화려한 색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경제적 부담만으로 의복의 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중간색 계통의 의복을 선택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무난하게 착용하려던 실용성의 강조보다는 밝고 경쾌하고 독특한 색상의 의복을 착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려는 개성의 강조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 안정과 색채혁명을 바탕으로 한 의복 색상의 변화는 개성창조와 외모중시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하였다. 또한 검정, 회색이 주를 이루던 의복의 색상이 빨강, 노랑, 보라 등의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조의 분홍, 연두, 연노랑색 등 밝고 환하면서도 은은한 색상들로 변화하여<sup>20)</sup>, 착용자를 밝고 건강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착용자 자신의 활동성과 자신감을 갖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 2) 기성복의 대중화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성복 착용율은 1973년에 15%, 1976년에 35.8%이던 것이 1980년에 63.6%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sup>21)</sup>, 이는 마음에 드는 색이나 디자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즉시 입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기성복의 착용률이 점점 증가하자, 1981년 5월에 국민 체위에 맞춰 통일된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 나오게 되었고<sup>22)</sup>, 그 뒤 계속하여 신체에 보다 적합한 기성복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표준규격을 이용한 기성복이 점차 우리나라 국민의 체위에 맞는 표준규격으로 조정되어 가며 연령과 체형별로 세분화 되기에 이르렀다.

## 3) 주니어 패션(junior fashion)의 등장

1980년에 발표된 교복 자율화의 실시로 청소년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높아지자, 1980년대 초반까지도 청소년 의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혀 없던 각 의류업체들은 학생복 전담부서를 두고 학생용 새 상표를 만들어 디자인과 색상 찾기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의복은 컬러 TV의 영향으로 차츰 색채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된 학생들에 맞춰 발랄하고 경쾌한 색상이 주를 이루었다<sup>23)</sup>.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청광색(dayglo color)이 새롭게 부각되어 의복뿐 아니라 신발, 양말

20) "대학생 옷 색상이 밝아졌다.", 「일간스포츠」, 1986년 2월 5일.

21) "우리나라 여성 63% 기성복 입는다", 「일간스포츠」, 1981년 2월 26일.

22) "기성복 표준규격화", 「일간스포츠」, 1981년 3월 26일.

23) "막 오른 「주니어 패션」 시대", 「조선일보」, 1982년 3월 13일.





<그림 1> 패션성을 강조한 가죽 원피스  
(「월간 멋」, 1989년 10월호)



<그림 2> 자유복장을 한 학생들  
(「조선일보」, 1982년 12월 8일)

에 이르기까지 강한 색끼리의 조화가 유행하였다<sup>24)</sup>. 이처럼 자기를 표현하는데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점차 의복에서의 개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대담하고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였다(그림 2).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청소년의 의생활을 바꾸어 놓은 가장 획기적인 것은 「아 랜드」를 시작으로한 중저가(中低價) 의류의 보급이다. 가격이나 디자인, 품질 등에 있어

마땅한 의복이 없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담없는 가격과 학생다운 디자인을 내세운 중저가 의류의 등장은 청소년의 패션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자율적인 분위기와 색채 감각의 발달, 중저가 의류의 보급이 뒷받침이 된 주니어 패션은 점점 정착되어 세련되고 활동적인 청소년 의생활을 가능케 했으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 외모에 대한 관심, 자아발견의 노력과 같은 청소년의 특징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고, 동시에 색채혁명에 따른 시각적 미감의 발달과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는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적응기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 (1) 스포츠웨어(sports wear)의 발달

스포츠웨어는 기능성과 신축성, 통기성, 흡습성이 강조된 의복으로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1980년대에는 신소재의 개발과 신체 활동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에 주력하여 이러한 특징을 만족시켜 나갔다. 먼저 신체활동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기능성의 강조는 많은 외국브랜드의 상륙에 맞서기 위해 국내 업체들이 한국인의 체위에 맞는 재단법을 개발하며 시작되었다. 나아가 소매나 깃을 떼었다 붙였다 하여 여러가지 용도로 입을 수 있는 다기

24) 박정숙,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능성 제품의 개발과, 운동할 때 신체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입체재단 제품의 사용도 이루어졌다<sup>25)</sup>. 또한, 신체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신체의 일부가 된 듯한 의복을 만들기 위한 신소재의 개발도 활발하였다. 하이포라(hipora)와 고어텍스(goretex)는 가볍고 투습, 방수, 보온 기능이 뛰어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심한 운동 후에도 쾌적한 장점을 지녀 스포츠웨어 외에도 겨울철 의복의 소재로까지 보편화되었다.

## (2) 다운웨어(down wear)의 유행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으로도 착용되면서 1980년대 초반에는 등산 스톱파커(storm parka)가 방한(防寒)을 목적으로 한 평상복으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sup>26)</sup>. 그러나 인조솜을 충전제로 하는 경우엔 충전재가 쉽게 영키고 부피가 줄어 보온성이 감소하는 단점을 지녀 충전제로 오리털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다운(down)은, 섬유가 방다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함기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충전물보다 효과적인 단열효과를 낼 수 있었다<sup>27)</sup>. 또한 가볍고 탄력이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섬유에 비해 가볍고 영키지도 않으며, 언제나 12~15%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지나친 습기를 배출하는 투습성과 보온성이 뛰어났다. 한편, 이러한 다운의 기능을 살리려면 원단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땀을 발산하면서도 바깥의 공기를 막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천의 구멍을 가능한 한 작게 한 특수원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어텍스, 인트란트, 하이포라 등과 같은 신소재가 개발되었고, 다운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다운 푸루프(down proof) 가공처리와, 재봉선을 방수공합 처리시킨 완벽한 방수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의복이 되었다. 소재뿐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벌로 여러 용도를 입을 수 있게 한 「다목적용 파카」, 안감쪽을 겉으로도 입을 수 있게 한 리버시블(reversible) 파카 등이 등장하여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sup>28)</sup>.

이처럼 기능성이 보장되어 다운웨어(down wear)의 착용이 크게 늘어나자 차츰 의복의 패션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먼저 스타일에 있어서는 의복 전체가 갖는 부피감을 줄여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한편, 남녀의 구별이 없던 디자인에도 변화를 주어 장식적인 커다란 모자를 달거나 허리에 끈을 넣어 여성적인 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스텔색이나 보색끼리의 조화, 형광색 등의 색상과 커다란 체크무늬나 꽃무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화려한 의복이 되었다.

## (3) 캐주얼웨어(casual wear)의 보편화

### ① 캐주얼웨어(casual wear)의 특징

캐주얼웨어(casual wear)는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고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뛰어나고 착용자의 착용방법에 따라 다른 의복으로 연출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신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독특함을 강조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② 빅 룩(big look)의 유행

1980년대 초반에 이세이 미야케(三宅一生, Issey Miyake)와 요지 야마모토(山本耀司, Yohji Yamamoto) 등을 필두로 한 일본의 패션 산업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재패니스 룩

25) "스포츠웨어 러시", 「일간스포츠」, 1988년 4월 1일.

26) "두툼한 등산용 「스톱파커」 방한 평상복으로 인기", 「일간스포츠」, 1980년 12월 11일.

27) "날개돋친 깃털 방한복 다운웨어", 「조선일보」, 1984년 2월 15일.

28) "울겨울을 더다운으로 따뜻하게", 「일간스포츠」, 1987년 11월 16일.



<그림 3> 빅 룩 (big look)  
 (『월간 멋』, 1987년 6월호)

(Japanese Look)이 국내에서도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풍의 「빅 룩」(big look)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플래시 댄스」(Flash Dance)의 국내 상영과 교복자율화의 실시로 증가된 편안한 의복에 대한 요구, 일본 패션잡지 구독의 영향 등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빅 룩」 형태의 의복은 일반적으로 남녀 구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크고 헐렁한 스타일의 무채색이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은 여성 캐주얼의 상의는 어깨가 남자 군복만큼 넓고, 길이는 반코트 또는 긴코트만큼 길어져 엉덩이 부분을 가렸으며 남자셔츠를 길게 늘인 듯한 느낌이 드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긴 셔츠는 앞 양끝을 잡아매거나 벨트를 느슨히 걸쳐 굵은 허리를 커버하는 동시에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빅 룩」의 캐주얼웨어는 규범을 따르지 않고 연출이 자유로운 특성 때문에 새로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기능성과 활동성, 개성, 자기 표현을 강조한 캐주얼웨어가 중·고등 학생부터 중장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 ③ 유니섹스 모드(unisex mode)의 보편화

교복 자율화 이후 보편화된 여성의 바지차림과 「빅 룩」 형태 의복의 유행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기표현과 더불어 의복에서의 남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유니섹스 모드(unisex mode)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때와 장소의 구별없이 착용하게 된 바지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다<sup>29)</sup>.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마치 유니폼처럼 착용되었던 남녀 대학생들의 오리털 파카와 청바지 차림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유니섹스 모드이다. 그 외에도 머리를 바짝 짧게 치켜 깎아 무스를 사용하여 정리한 남녀 공용의 머리 모양에서부터 풍성한 재킷과 헐렁하게 긴 바지, 우체부 가방 같은 큰 숄더백(shoulder bag), 납작하고 투박한 구두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유니섹스 모드가 보편화되어 유행하는 경향이였다(그림 4). 그리고 점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각각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감각을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앤드로지너스 룩(androgeneous look)으로까지 발전하여, 남성복의 재킷과 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성적인 감각이 여성스런 스커트와 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30)</sup>

29) 이정후 “한국 여성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30) 조규화, “패션에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 『월간 멋』, 1987년 3월.



<그림 4> 유니 섹스 모드(uni-sex mode)

(「월간 멋」, 1987년 1월호)

이처럼 캐주얼웨어에서 시작된 유니섹스 모드는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남성들의 패션 감각이 발달한 것 외에도, 마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것을 찾아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젊은 세대의 개성 창조에 대한 욕구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④ 토탈 룩(total look)의 등장

스포티 캐주얼(sporty casual)에서 출발한 캐주얼웨어는 빅 룩과 유니섹스 모드의 유행을 거치며 점차 패션화 되었다. 특히 헐렁하고 간편한 의복을 여러 벌 걸쳐 입거나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놓아 입는 방법이 유행하자 길이가 다른 의복들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모든 소지품이 패션화하였으므로 소지품과 의복의 조화도 중요하였다. 결국 모자, 의복, 스타킹, 구두,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된 복식 전체를 코디네

이트(coordinate)시킨 토탈 룩(total look)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착용자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탈 룩의 등장은 디자이너가 조화시켜 제시한 의복을 선택하던 예전과는 달리 착용자 자신이 직접 새로운 의복을 창조하고 연출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된 안목을 갖게 됨을 의미한 것이었다.

### 4) 실용적 의복의 패션화

#### ① 내의의 패션화

내의 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지난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올라선 시기로, 의복구매경향이 멋을 내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따라서 외의의 패션화가 가속되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내의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흰색이 압도적이던 내의에서도 색상에 눈뜨기 시작, 서서히 핑크와 오렌지색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갔다.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도 레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단순한 무늬에서 화려하고 변화있는 무늬를 넣은 것들이 이용되는 등, 단순한 기능 의복에서 우아함과 화려함을 지닌 패션의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실용성만을 강조하던 내의가 정신적인 만족까지 주어야 하는 패션의류가 된 것이다.

#### ② 진(jean)의류의 다양화

1970년대의 청년문화를 상징하던 청바지는 실용적인 의복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유스러운 의복이며, 남녀의 구별이 없이 입혀지는 유니섹스 스타일(unisex style)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편안한 소재의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직장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진(jean) 의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모든 생활용품과 의복에서의 패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편화됨에 따라 패션진(fashion jean)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83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패션진의 유행은 1980년대 중반에 줄무늬를 넣은 청바지가 국내에 등장한

이후 스노우 진(snow jean), 이중염색 진(jean) 등의 켈러진 형태로 나타나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옷의 절개선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색의 스티치로 장식효과를 내거나, 자수테이프, 가죽조각 등을 부분 장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제품에서 부드러운 디자인과 화사한 프린트로 멋을 낸 제품으로 변화하기까지 하였으며, 「제스」, 「겔빈 클라인」 등 서구 디자이너 브랜드 진(designer brand jean)의 도입과 함께 편하게 막 입는 옷에서 예쁘고 세련되게 입는 옷으로 변화하였다<sup>31)</sup>. 이에 따라 청바지를 정장 못지않게 우아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로 입는 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정장 재킷과 섬세한 액세서리나 벨트, 굽 높은 구두와 조화시켜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5).

이와 같은 패션진의 등장과 빠른 속도의 확산은 패션진이 새로운 것과 감각적인 멋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5> 다양한 패션 진(fashion jean)  
(「윌간 멋」, 1992년 5월호)

### 5) 미니스타일(mini style)의 유행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는 젊은 세대는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규범보다는 개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의 복식현상 중 큰 흐름으로 나타난 미니스타일(mini style)도 패션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고,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의복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다시 등장하였다. 즉, 미니스커트로 인한 노출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새롭고 발랄해 보이는 점이 좋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특히 전 세대에 비해 날씬하고 곧은 다리의 서구적 체형을 가진 젊은 세대가 활동적이고 자유스럽고 개방적이며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미니스타일의 유행을 가속시켰다.

가장 먼저 짧아지기 시작한 것은 바지로, 1980년대 초반에는 버뮤다(bermuda)형, 니커(knicker)형, 큐롯(culotte)형 등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길이가 계속 짧아져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반바지가 일상복은 물론 정장 외출복으로까지 이용되었다. 의복의 스타일은 스커트와 비슷한 큐롯(culotte)형에서 남자들이 많이 입던 타이

31) "분고장 「패션 청바지」 물러온다", 「동아일보」, 1989년 4월 15일.

32) 이은영, "미니스커트는 얼마나 더 짧아질까", 「윌간 멋」, 1991년 8월.

트한 반바지로 변하였고, 의복의 소재도 면, 마 외에 가볍고 부드러운 쿨울, 실크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재킷과 바지로 이루어진 정장 수트(suit)가 등장하여 활동이 많은 직장여성들의 정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즉, 반바지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전문직 여성이나 유니폼을 입는 여사원들의 정장 출퇴근복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또한 스커트도 활동적이도록 길이가 점차 짧아졌고, 겨울의 대표적 의류인 코트도 실내에서의 생활이 증가하고 여성 자가용 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주장스럽지 않고 활동적인 반코트가 유행하였다.

이처럼 미니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던 것은 처음에는 실용성과 활동성 때문이었으나 점차 몸매에 자신감을 갖게 된 여성들이 몸매를 과시할 수 있는 타이트한 스타일의 옷, 짧은 옷들을 자신있게 착용하게 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바지는 현대인의 활동적인 생활양식에 적합할 뿐 아니라, 매우 발달하고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착용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미니스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스커트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sup>33)</sup>.

결국 1980년대에 재등장한 미니스타일은 스포츠의 보급과 여가시간의 활용, 증가된 여성의 사회생활, 자가용 운전자와 냉난방 시설의 증가로 인한 활동성과 간편함의 요구 외에도 젊은 세대의 달라진 외모에 맞춰 달라진 미의식과 개성있는 외모의 추구, 자신의 모습을 자신있게 내보이려는 자기표현 욕구의 만족을 가능케 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6) 한글 티셔츠(T-shirts)의 등장과 개량한복의 재등장**

1980년대는 젊은층으로부터 확산된 전통문화운동의 영향으로 「국적있는 옷입기」 운동이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sup>34)</sup>.



<그림 6> 반바지를 이용한 정장 수트  
(「월간 멋」, 1991년 6월호)



<그림 7> 한글 티셔츠(T-shirt)  
(「조선일보」, 1988년 7월 19일)

33) 전계서.

34) 「국적있는 옷 입기」 운동, 「조선일보」, 1984년 6월 28일.

캐주얼웨어의 인기와 더불어 남녀노소 모두가 편한 옷차림으로 선호하였던 티셔츠에는 외국어와 외국의 유명상표가 프린트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실시된 「우리 옷 입기 전시 발표회」에는 일반 상의에 전통적인 문양을 찍거나 한복모양을 일부 변형한 형태의 의복과, 옛글 속의 글귀들을 알파벳 대신 프린트한 티셔츠들이 소개되었다(그림 7). 이렇게 시작된 한글 티셔츠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또한 개량한복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져 전통한복의 선을 거의 유지하면서 양장처럼 과감한 디자인과 재단으로 멋을 내거나, 어깨걸이식 치마 대신 허리에 벨트를 단 미디(midi)형 치마, 적삼을 변형한 반팔 저고리 등이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층에서부터 시원함과 품위를 추구하는 중년에 이르기까지 착용되었다. 즉, 탈춤, 풍물놀이, 국악기 연주인의 증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는 전통민족문화의 고수와 발전이 한글티셔츠와 개량한복의 착용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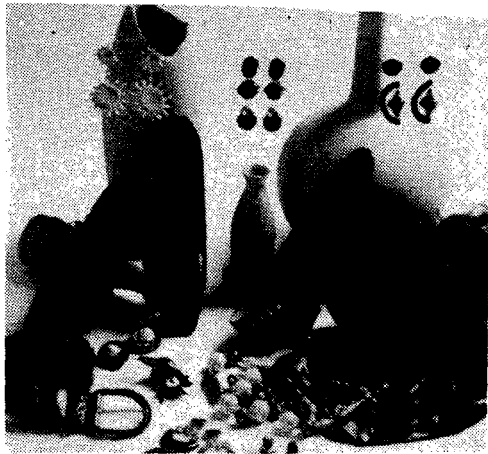
### 7) 자연회귀 현상

1980년대 우리나라 복식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자연회귀이다.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된 1980년대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천연소재를 선호하고, 꽃무늬와 자연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하는 등 의복의 소재, 문양, 디자인에 고루 표현되었다(그림 8).

## 2. 장신구

### 1) 모 자

스포츠가 생활화되고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고 관람하는 횟수가 증



<그림 8> 자연회귀 현상의 영향을 받은 민속품 장신구들  
(「월간 멋」, 1992년 12월호)



<그림 9> 장식성을 강조한 운동모자  
(「월간 멋」, 1992년 6월호)

가하여 실외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 자외선 차단과 피부보호를 목적으로 모자가 다시 등장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시원하면서도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선캡(sun cap)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캐주얼웨어에 어울리는 진(jean)으로 만든 모자와 원색의 면으로 된 테니스용 모자도 많이 착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패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정장용 의복에도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 되어갔다.

그러나 자기표현과 개성창조를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며 새롭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점차 실용적인 품목이던 모자를 장신구의 일종으로까지 변화시켰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감각적인 취향을 가장 잘 만족시킨 모자의 유형은 차양이 길고 형광색이나 명도 높은 원색으로 된 것으로 선명한 색상에 영문자를 새겨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9>에 보듯이 야구선수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이 모자는 젊은 남녀들이 청바지나 발랄한 미니스커트에 맞춰 착용하였다. 이처럼 거침없고 자유스러운 옷차림에 어울리는 대담한 색상의 운동모자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패션에 대한 안목이 높아진 젊은 세대의 자기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되었다.

## 2) 신 발

### (1) 운동화

생활에서의 여유가 늘어나 고조되기 시작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은 점점 생활에서의 편이와 건강을 추구하게 되었고, 운동시에 신던 편하고 착용감이 좋은 운동화를 평소에도 착용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또한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완한 디자인과 소재의 개발로 신발류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품질에 대한 요구가 만족되면서 신발 자체의 기능보다 멋을 중시하게 되었다. 색상과 문양, 디자인이 화려해진 패션운동화는 꽃무늬를 박은 것, 색실로 수놓은 것, 운동화끈 빛깔을 달리하거나 리본을 단 것 등으로 다양하고 값이 저렴하여 운동화를 색상별로 장만해두고 의복 색상에 맞춰 착용하기까지 하였다.

### (2) 캐주얼 슈즈(casual shoes)

1982년에 교복 자율화의 실시가 발표되면서 그 동안 경직되었던 청소년의 생활이 활기를 띠게 되고 편안하며 실용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캐주얼 슈즈(casual shoes)의 착용이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었다. 심지어는 편안함과 기능성 때문에 정장 차림에도 캐주얼 슈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1980년대 들어와 늘어나기 시작한 자가용 운전자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굽이 높은 구두보다 굽이 낮고 편안하며 활동하기에 용이한 캐주얼 슈즈를 착용하게 되었다.

### (3) 구 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여가선용과 시간관리를 중시하게 되자 의복도 점차 활동적인 바지나 반바지가 착용되었고, 이에 맞추어 구두도 활동성을 강조한 굽이 낮은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반면에 단순히 키를 키보이게 하거나 다리 맵시를 좋게 해주는 도구로 인식되던 구두가 그 자체로 남에게 보여지는 패션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색상의 가죽을 덧대어 화려한 색채감각을 과시하는 형태가 두드러졌고, 토탈 패션의 영향으로 의복과의 조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 (4) 부츠(boots)

생활수준이 향상된 1980년대에는 실내 난방이 보편화되고 우수해져 보온성보다는 활동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따라서 목이 긴 부츠보다는 짧은 부츠가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시도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는 '부츠를 겨울에만 신는다'는 통념을 깨뜨렸다. 옷차림에 따라 구두를 선택하는 토탈 코디네이션(total coordination)의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여름에도 천이나 비닐, 심지어는 가죽으로 된 부츠를 착용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군화형태의 부츠를 착용하여 개성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의 신발은 실용성과 기능성 외에도 패션성을 강조하여 개성을 창조하고 자기를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감각적인 욕구를 만족시켰다.

### 3) 장신구

#### (1) 선글라스, 안경

한여름의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선글라스는 실외에서의 생활이 증가하자 매우 보편적이 되어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착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겨울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된 스키는 반사되는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의 사용을 증가시켰고, 자가용 소유자의 증가는 햇빛과 다른 불빛들을 차단하기 위한 운전사의 선글라스 사용을 확대시켰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는 경향이 늘어나 경기장이나 해변가 등의 특정 장소에서나 볼 수 있던 선글라스가 도심 한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품목이 되었다.

한편, 선글라스의 패션소품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되어 젊은 층에서는 할아버지 돌보기 안경 같은 형태의 짙은 검정 선글라스를 멋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0). 또한 모든 생활용품이 패션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돛수없는 안경이 유행하였고, 심지어는 렌즈없는 안경테만을 착용하기도 하여 외모를 중시하고 자신을 연출하려는 젊은이들의 한 수단이 되었다.

#### (2) 숄(shawls), 스카프(scarves)

1980년대에 들어와 우수한 실내 난방으로 두꺼운 의복이나 여러 겹의 의복 착용이 사라지자 대신 얇고 간편하며 활동하기에 용이하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 숄(shawl)과 스카프(scarf)의 착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숄과 스카프의 패션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 색상이 점차 대담해지고, 문양은 자연회귀 현상의 영향으로 페이즐리(paisley) 문양이나 꽃 문양을 비롯한 자연 문양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실크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차츰 따뜻하며 부드럽고 관리가 쉬운 모직이나 합성섬유도 함께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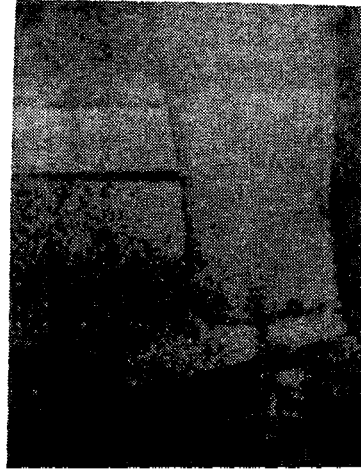
스카프는 정사각형 스타일보다 캐주얼웨어와의 조화가 쉬운 긴 직사각형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또한 기존 규범을 따르기보다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젊은 층에서는 스카프를 말아 바지 벨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허리에 새쉬(sash)처럼 두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숄과 스카프는 신체의 보온을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성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 (3) 스타킹(stockings)



<그림 10> 동그란테의 선글라스  
(『월간 멋』, 1992년 7월호)



<그림 11> 발찌  
(『일간스포츠』, 1988년 5월 28일)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다리가 점차 많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스타킹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이전세대보다 크고 날씬하며 다리가 곧은 서구적 체형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체형에 자신이 생긴 젊은 세대는 다리를 강조하기 위해 보다 강렬한 인상의 원색 스타킹이나 무늬가 있는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이처럼 색상과 무늬의 선택에 놀랄 만큼 폭이 넓어진 것은 자신의 체형에,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현대인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며 개성창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활의 모든 면에서 편리와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스타킹에도 반영되어 단지 색상과 맵시만을 고려하던 예전과는 달리 신축성과 착용감,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결국 신축성이 뛰어나고 밴드 부분의 압력이 저하되고 울이 잘 풀어지지 않고 착용감이 우수한 고기능의 스타킹이 등장하였고, 빠른 기간내에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소재는 나일론과 고기능성의 폴리우레탄 섬유가 사용되었다.

#### (4) 액세서리(accessories)

1980년대에는 액세서리가 신분의 상징을 위한 보석에서 장식을 위한 도구로 그 기능이 변화하였다.

교복 자율화 이후 패션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된 젊은 세대는 액세서리의 착용을 보편화시켰다. 정장은 물론 캐주얼웨어 착용시에도 액세서리를 착용하였고, 의복의 색상이나 디자인에 따라 액세서리를 선택하여 착용하였다. 따라서 캐주얼웨어에 어울리는 대담하고 독특한 디자인과 플라스틱, 코르크, 나무 등의 값싸고 특이한 소재의 액세서리들이 대량보급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였다. 액세서리의 종류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는 물론 발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미니스타일의 유행에 맞춰 등장한 발찌는 주로 패션 운동화나 굽 낮은 구두를 신을 때 착용하였는데, 발찌의 등장은 몸매에 자신을 가지게 된 젊은이들이 다리에까지 장식을 하여 자신을 과시하려 한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그림 11).

「빅 룩」과 미니스타일의 유행은 벨트를 장신구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헐렁한 오버 블라우스(over blouse)가 유행하면서 금속 체인으로 된 벨트와 느슨하게 늘어져 장식효과를 내는 벨트가 함께 유행하였고, 점점 굵고 대담하며 다양한 소재의 벨트가 등장하였다. 또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입는 디자이너 진(jean)의 유행으로 통가죽 벨트가 아닌 금속이나 에나멜 가죽의 벨트가 청바지에 어울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시계도 패션화하여, 의복 색상에 맞춰 같은 색상의 시계를 착용하는가 하면 시계의 모양도 삼각형, 타원형, 시각형 등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독특해졌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의 한 요소인 복식의 현상을 연구한 것으로, Malinowski의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여성복식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우리나라 여성복식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변화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복은 천연섬유가 선호되고 첨단신소재가 개발되어 소재의 다양화 및 고급화가 이루어진 한편, 색채혁명 이후 다양한 의복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색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디자인보다는 색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고급화, 다양화한 의복은 현대인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기성복의 편리함 때문에 기성복을 착용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복 자율화 이후 등장한 주니어 패션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도기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자아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주니어 패션은 청소년들이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기계 역할을 하였다.

스포츠웨어에서 시작된 다운웨어는 방한의복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점차 패션성이 가미되어 여성스러운 디자인도 개발되었다. 캐주얼웨어의 일반적인 형태는 「빅 룩」이었으며, 크고 헐렁한 의복은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유니섹스 모드를 유행시켰다. 실용적인 의복인 내의, 진(jean)의류도 기능성 외에 개성과 우아함이 표현된 패션의류가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패션화된 활동복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개성 표현과,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다양하고 새로운 자기 연출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바지와 스커트는 점점 길이가 짧아져 활동적이 됨은 물론 몸매에 자신이 있는 젊은이들의 과시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미니스타일은 사회생활이 증가한 여성들에게 활동성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 생활을 가능케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현대인의 과시욕구 충족에 이용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한편, 한글티셔츠와 개량한복은 전통민족문화를 고수하고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 현대 생활에 호응된 것으로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무분별한 외래 문화 수용을 억

제하고 「우리 것」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여 올바르고 주체성 있는 우리 문화창조에 공헌하였다.

생태계의 파괴, 환경문제로 대두된 환경보호 의식이 색상, 문양, 디자인에 있어서의 자연회귀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연회귀적 복식은 자연에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자연을 돌아보게 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케 하는 홍보 역할을 하였다.

모자의 착용은 증가된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자외선의 피해를 막고 피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젊은이들이 단순히 장식을 목적으로 형광색이나 강렬한 색의 야구모자를 착용하기로 하였다.

신발은 기능성과 활동성이 강조되어 운동화와 캐주얼 슈즈, 굽 낮은 구두, 목이 짧은 부츠가 유행하였다. 그리고 패션성을 강조한 패션운동화와, 화려한 색상의 구두도 함께 유행하였다.

선글라스의 사용은 겨울철 스포츠의 대중화, 자가용 운전자의 증가, 자외선의 피해로 인해 확대되었다.

울과 스카프는 난방시설의 보편화와 자가용 운전자의 증가로 인해 착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개성연출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카프를 벨트로 이용하기도 하고 허리에 새쉬(sash)처럼 두르기도 하였다.

스타킹은 미니스타일의 유행으로 중요시되어 색상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고기능성과 고감각에 대한 요구로 고탄력 스타킹이 등장하였다.

액세서리는 자기표현에 대담한 젊은이들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발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우리나라 여성복식의 현상은 건강을 추구하고, 생활에서의 편이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대담한 시도로 개성을 창조하고자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고수와 발전을 지향하며,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와 같이 복식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의 한 요소인 동시에 하나의 작은 문화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생리적인 욕구는 물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직면하는 여러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적 실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명사), 1984.
2. 김진구, “복식과 사회”,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Vol. 4, 1986, pp. 253-303.
3. 김순심, “우리나라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16, 1991. pp. 141-148.
4. 동아일보, 1980. 1. 1-1992. 12. 31. (서울 : 동아일보사)
5.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6.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7. 박정숙,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 염혜정, “한국 신세대의 복식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9. 월간 「뎃」, 1984. 5 - 1992. 12. (서울 : 동아일보사)
10. 유수경, “한국 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1. 이광규,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 일조각), 1971
12. 이정후, “한국 여성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3. 일간 스포츠, 1980. 1. 1. - 1992. 12. 31(서울 : 한국일보사)
14. 조선일보, 1980. 1. 1. - 1992. 12. 31(서울 : 조선일보사)
15. 한국일보, 1988. 10. 26. - 1989. 6. 25. (서울 : 한국일보사)
16.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7. 아야베 쓰네키 외, 이종원 역,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서울 : 인간사랑), 1991.
18. Beattie, John, 최재석 역, 「사회인류학」, (서울 : 일지사), 1986.
19. Hurlock, Elizabeth, 박길순, 정현숙 역, 「복식의 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0.
20. Linton, Ralph, 김경수 역, 「문화와 인성」, (서울 : 현음사), 1992.
21. Keesing, R. M., 김경동 역, 「현대문화인류학」, (서울 : 현음사), 1985.
22. Sahlins, M. D., 김성례 역, 「문화와 실용논리」, (서울 : 나남), 1991
23. White, Leslie., 이문용 역, 「문화의 개념」, (서울 : 일지사), 1990
24. Eister, Allan W., “Function”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ed. Julius Gould, William L. Kolb, (New York : Macmillan Co.), 1965. pp. 277-279.
25. Malinowski, B., “Cultur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31. pp. 621-646.
26. Singer, M., “Cultur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 pp. 527-568.
27. Voget, Fred W.,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e Anthropology*, ed. John J. Honigmann,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3. pp. 30-48.